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사태



가뭄



쓰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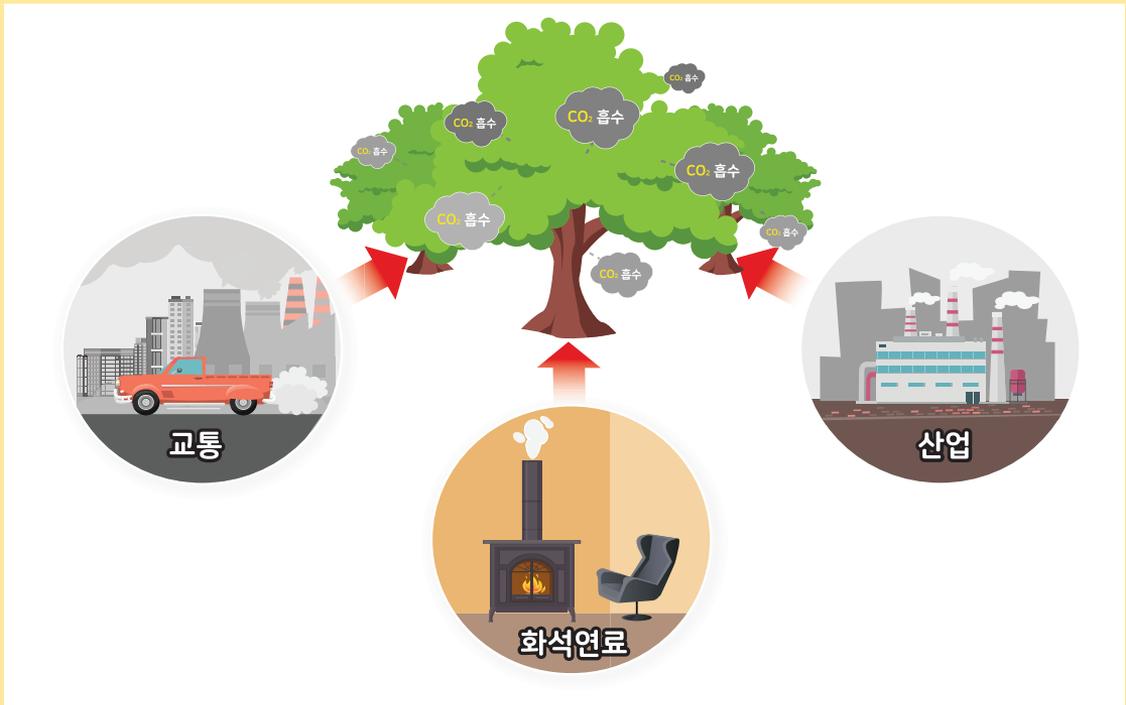


폭우



기후변화와 산림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숲은 자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흡수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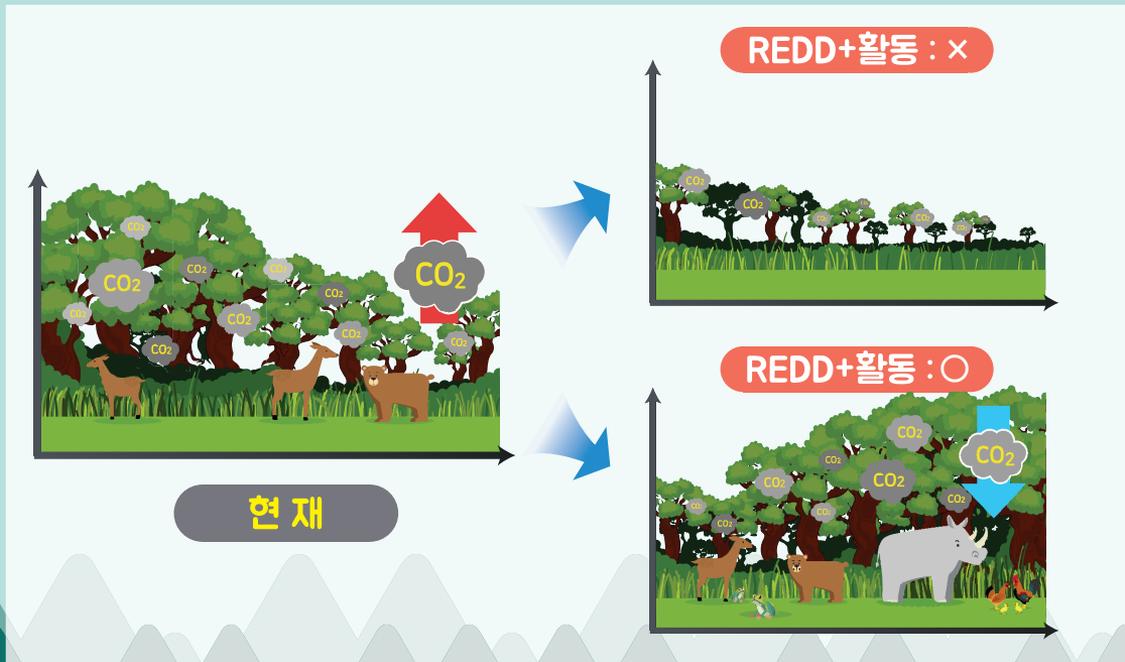
한국의 경험 공유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림 보전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를 막는 활동

REDD+(산림 파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활동)는
숲이 파괴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REDD+ 활동

지역 주민들이 불법으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감시단을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산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소득원을 소개 하고 역량을 배양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감시단 운영

양봉



교육



캄보디아와의 협력 성공

산림청은 캄보디아와 REDD+ 사업을 통해,
6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2,920명 주민들에게
소득원을 제공하고, 11종의 멸종 위기종을 보존했습니다.

온실가스 65만톤 감축



= 자동차 34만대의
연간 배출량



주민 2,920명
대상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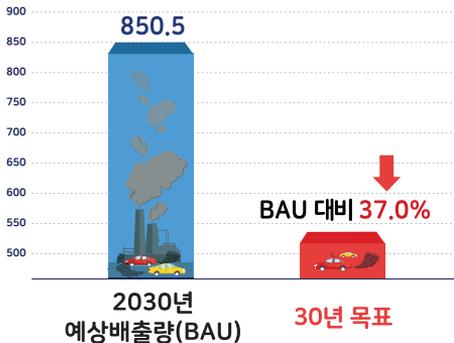
조류 59종
포유류 23종,
양서류 3종 보존
(11종 멸종 위기)

REDD+ 결과물의 활용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NDC)과 기업들의 감축 의무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단위 : 백만톤 CO_2e



민간 협력



산림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66

이러한 REDD+의 개념과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4차 REDD+ 영상 교육(11.26~27)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9

11월 9일까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fofilms.forest.go.kr)을 통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